

왜란의 발발과 조선의 청병외교¹⁾

羅 種 宇

(원광대 교수)

1. 16세기 동아의 정세
2. 임난 전의 국방체제와 왜란의 발발
3. 조선의 대명(對明) 청병(請兵)외교
4. 맺 음 말

1. 16세기 동아의 정세

(1) 국내정세

15세기에 완성된 조선왕조의 지배체제는 16세기에 접어들면서 각 방면에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우선 정치적인 변화를 살펴보면 15세기에 확립된 지배질서가 무너지고, 16세기에 접어들면서 조선왕조는 정치적

* 이 논문은 2005년도 원광대학교 교비지원에 의해 수행.

1) 이현중, 「16세기 후반기 동아의 정세」, 『한국사』 12(국사편찬위원회, 1977), 277쪽.

으로 사대부지배계층의 분열과 대립의 권력투쟁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정국은 4차례의 사화와 당쟁으로 당파 간에 배타적이고 독선적으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14세기 이래 안정되어온 통일 상태에서 분열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사회정의와 기강이 문란해지고 정계와 학계와 사상계가 모두 분열되는 속에서 국방력은 허술해지고 있었다.

다음으로 경제적인 변화를 살펴보면 과전법(科田法)의 붕괴와 폐지를 들 수 있다. 과전법의 폐지는 귀족관료층의 토지겸병(土地兼併)을 더욱 확대시켰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15세기에 철저하였던 부역제도, 상업억제정책과 관청수공업 제도가 무너져 가던 때였다. 이는 조선왕조 사회 변화를 일으키는 시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군사 제도면에 있어서도 병농일치제가 무너지고 용병제적인 양상이 나타나 마침내는 군적수포법(軍籍收布法)이 실시된 세기이다. 조선 초부터의 군역제(軍役制)의 모순은 16세기에 접어들면 피역(避役)과 대역(代役)이 나타나게 되며, 농민층에서는 군역을 피하기 위하여 노비나 승려가 되거나 또는 천역(賤役)에 투탁(投託)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다. 그리고 군역이 현역 복무제 대신 포납제(布納制)로 바뀌어지는 것도 이 시기의 두드러진 사회 특징의 하나라 할 수 있다.

16세기에 있어서는 대외관계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다. 당시 동양의 국제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오직 명에 대한 친선관계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생각했던 위정자들의 좁은 견해는 권력싸움과 과당조직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일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고려 말부터 시작된 왜구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조선왕조로 넘어왔으며 조선왕조는 왜구를 막기 위한 회유책으로 교린외교정책을 펴오며, 일본과의 직접적인 외교방식보다는 대마도주(對馬島主)를 중계로 하는 외교관계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외교정책은 15세기까지는 성공하여 큰 충돌이 없었으나 16세기에 접어들면서 변화를 맞게 되었다. 1510년 삼포왜란이 일어나자 조선 조정은 삼포를 폐쇄하고 대마도주와의 관계도 단절하는 강경책을 실시했다. 삼포왜란을 계기로 1512년 임신조

악이 맺어져 세사미(歲賜米)와 세견선의 수를 반감하였고, 1544년 사랑(蛇梁)에 왜구가 침입하자 이를 계기로 정미조약을 맺어 더욱 엄격한 제제를 가하였다. 이후 1555년에는 전라도 영암 달랑포(達梁浦)에 왜구 70척이 침입한 을묘왜변(乙卯倭變)이 일어났다. 이 이후로 일본과의 정식 교역은 일체 단절되었다. 당시 일본은 무로마치바쿠후(室町幕府)가 붕괴되고 각지의 봉건영주가 할거하는 전국시대에 돌입하게 되자, 일본 안에서는 조선과 관계개선을 주도할 주체가 없었다.²⁾ 전국시대는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에 의해 통일되었다. 도요토미는 대마도주 소오요시노리(宗義調)에게 명령을 내려 조선이 일본에 사신을 보내어 수호(修好)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조선과 동맹을 맺고 명나라를 정벌하려는 의도에서였다. 이에 소오는 가신 다치바나(橋康廣) 등을 일본국 사신이란 명목으로 부산포에 보내어 통호할 것을 청하였다.³⁾ 1588년 조선 조정은 여러 가지 논의 끝에 다치바나 일행을 “수호가 어두워서 통신사를 보낼 수 없다”는 명분으로 돌려보냈다. 이듬해인 1589년 새로 대마도주가 된 소오요시도시(宗義智)는 도요토미의 독촉이 심해지자 승려인 성주사(聖住寺) 주지인 겐소(玄蘇)와 가신 야나가와(柳川調信), 고니시유키나가의 사신 시마이(島井宗室)로 사신을 구성하여 조선에 파견하였다. 이때에도 조선 조정에서는 통신사의 파견 문제로 논란이 계속되다가 우여곡절 끝에 1589년 11월 중순이 넘어서야 통신사 파견을 결정하고 정사에 황윤길(黃允吉), 부사에 김성일(金誠一), 서장관에 허성(許箴)을 결정하였다. 통신사 일행은 이듬해인 1590년 3월에 겐소 일행과 함께 출발하여 다음해인 1591년 서울에 돌아왔다. 그런데 통신사 일행의 보고 내용 또한 서로 상반되었으니 정사 황윤길은 일본이 곧 침략할 것이라 했고, 부사 김성일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바로 이때는 임진왜란 발발 1년 전인 바 조선 조정에서는 일본에 대한 사정이 그렇게 어두워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1555년 을묘왜변 이후 일본과 국교가 단절되고 난 뒤 30여

2) 최영희, 「왜란 전 정세」, 『한국사』 29(국사편찬위원회, 1995), 14쪽.

3) 이장희, 「일본의 침입과 조선 민중의 응전」, 『한국사』 8(한길사, 1994), 159~160쪽 참조.

년 간은 조선은 일본의 국내사정을 전혀 알 수가 없었던데 기인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여진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15세기에는 회유책과 토벌책이 병행되어 내부(來附)와 귀화를 장려하는 한편 6진과 4군을 개척하기도하여 비교적 여진과의 관계는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으나 16세기 말엽인 선조 16년 1월에 두만강 방면의 추장 니탕개(尼湯介)가 진장(鎭將)의 대우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침입한 이래, 여진족들이 함경도 국경지방을 자주 침입해 왔다. 이처럼 16세기말에는 적은 규모나마 여진족의 침입은 북방 경계에 신경을 쓰게 만들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조선왕조는 16세기에 접어들면서 전세기에 세워진 왕조적인 지배체제가 거의 전면적으로 바뀌어 가는 특징을 가진 시대였다. 16세기를 고비로 하여 조선 왕조를 세운 사대부 계급의 역사 담당 능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일본의 형세변동

한편 일본은 응인·문명의 난(應仁·文明の亂, 1467~1477) 이후 약 100년간 하극상의 동란기인 전국시대로 들어갔다. 이런 과정 속에서 16세기에 접어들면 무로마치 바꾸후(室町幕府)의 관료였던 슈고 다이묘(守護大名)들의 세력이 약화되고 지방의 호족들이 센코쿠 다이묘(戰國大名)라 지칭하면서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였다.

이 시기의 센코쿠 다이묘들은 군사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신예 무기에 관심이 많았는데 마침 포르투갈·스페인 등 서양 세력의 동양으로의 진출에 따라 서양 문물이 전래되었다.

이러한 정치상황 속에서 16세기의 일본의 대외관계는 유럽인과의 접촉에 의하여 큰 영향을 받았다. 특히 1543년 8월에 포르투갈인 제이모토(Zeimoto), 모타(Mota), 페익소타(Peixota) 등에 의한 총포의 전래는 당시의 전국쟁란이라는 일본사정으로 인하여 무장(武將)들의 큰 관심 속에 급속히 보급되

었다. 총의 보급은 축성술, 전법 등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왔다. 1575년의 장조(長篠)전투에서 오다노부가나(織田信長)는 새로운 전법의 위력을 크게 과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신무기 소총에 대한 봉건 제후들의 욕구는 대단하여 경쟁적으로 소총, 화약을 얻어서 위세를 떨치려고 애쓰게 되었다. 이러한 까닭과 함께 무역의 이익을 얻어서 재원을 보충하려는 의도로 유럽인의 상선(商船)을 서로 다투어 자신의 영내로 끌어들이게 되었다.⁴⁾ 이런 가운데 소총은 자연스럽게 주조, 유포되어 1556년경에는 일본 전역에 예상 밖으로 많이 유포되었고 그것은 봉건체제에 대한 하나의 위협적인 존재로 등장하게 되었다.⁵⁾

총과 더불어 16세기에 유럽인을 통한 하나의 커다란 변화는 1549년 이래로 일본 서부에 전래된 야소교(耶蘇敎=예수교)였다. 이 새로운 종교는 천황을 섬기던 일본의 봉건적 윤리 관념에 큰 파문을 던졌지만 무역의 이익과 소총 획득에 열중한 규슈의 봉건제후들은 호의적 태도로 받아들여 주었다. 그리하여 나가사끼(長崎) 같은 곳은 선교사와 예수교 신자들이 늘어나 예수교의 도시로 발전되었다.

이 같이 서부 일본에 있어서의 동양무역에 따르는 상업의 번성과 예수교의 유포는 바쿠후시대 이래, 당시 하극상의 풍조로 인한 반봉건적 기세가 드높아 가던 기류를 타고 일본 봉건사회에 대한 반봉건적 기운을 자극하게 되었다. 이 새로운 종교는 다이묘(大名), 무사, 상인 간에 전파되기도 하였으나 신도의 대부분은 농민이었다.⁶⁾ 이러한 종교의 세력은 도요토미시대에 규슈의 농민들 사이에는 그들의 영주에 대한 반항의 기세로까지 나타나게 되었다.⁷⁾ 이 같은 정세 속에서 1585년에 관백(關白)이던 도요토미는 1587

4) 辻善之助, 『増訂海外交通史話』(1940), 372쪽.

5) 伊豆公夫, 『日本社會史講話』 近世社會篇(1934), 159쪽, 中川清次郎, 『西力東漸本末』(1943) 56쪽에서 1556년에 일본에 있는 소총이 府内城下만 해도 3만정 이상이며 일본 전토에는 30만정 이상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숫자를 그대로 다 믿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때쯤에는 소총의 수가 예상보다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伊豆公夫, 위의 책, 159쪽.

년 선교사의 국외 추방령을 내리고 나가사끼(長崎)를 예수교의 수중에서 탈환하여 직할령으로 삼았다.

도요토미는 전국(戰國)통일전쟁 속에서 봉건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면에서 몇 가지의 일을 단행하였다. 선교사 추방령 이후 다이코오 겐찌(太閤檢地)⁸⁾를 실시하였다. 이것은 정권의 기반인 토지와 농민을 일원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 것으로, 검지대장에 등록된 자는 경작지를 버리고 자유롭게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금지되었다. 도요토미는 다시 1587년에는 가다나가리(刀狩)습을 발포하여 당시 새로 건립 중이던 방광사(方廣寺)의 못과 돌저귀를 만든다고 빙자하여 농민, 승려들의 도검, 소총 기타 무기를 몰수하는 영을 발포하였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집단적인 봉건제 확립을 위한 병, 농 분리와 경제적 기초로서의 농민의 신분고정 등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때를 기점으로 도요토미의 조선 침략에 대한 구체적인 결심이 실행에 옮겨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으로는 1586년 3월 16일에 도요토미는 오사카성에서 당시 일본에 와있던 포르투갈의 선교사로 야소회 부관구장(副管區長) Gaspar Coeliho와 회견하는 자리에서 명(明) 정복의 뜻을 내비쳤다고 하였다⁹⁾고 하였다. 도요토미의 이러한 의중은 또 다른 곳에서도 보이고 있으니 그는 당시에 대군단(大軍團)의 수송용 군선(軍船) 2척의 건조를 위해 목재 벌채를 추진하였으며, 특히 선교사들에게는 장비를 갖춘 유럽의 전함 2척의 구입 알선을 의뢰한 바 있었다.¹⁰⁾ 또한 같은 해 4월 10일에는

7) 위의 책, 188~189쪽.

8) 太閤이란 秀吉이 關白의 자리를 아우에게 물려준 뒤 前關白의 뜻으로 부른 칭호이다. 戰國大名의 檢地는 토지대장의 제출을 명하는 정도였는데 비해 太閤檢地는 측량감독관인 檢地奉行을 파견하여 제출된 토지대장을 엄밀히 조사하게 하는 보다 철저한 것이었다.

9) 이민호, 「임난과 조·중·일 외교관계」, 『임난수군활동연구논총』(해군군사연구소, 1993), 12쪽.

10) 中村榮孝, 『日鮮關係史の研究』中(吉川弘文館, 1969) 242~243쪽.

중국지방(현 廣島일대)의 모오리 데루모도(毛利輝元)에게 보낸 도요토미의 주인장(朱印章：朱印든 공문서)속에 「高麗御渡海事」라는 문항이 있으며 같은 날짜에 고바야가와 다가가게(小早川隆景) 등에게 부친 주인장에도 같은 문항이 들어 있다.¹¹⁾ 당시 도요토미는 과대망상적인 일종의 대아시아 제국을 꿈꾸고 있었으니 태양의 아들을 자처한 그는 명을 정복하여 수도를 북경으로 옮기고 더 나아가 인도까지 영유한다는 거창한 꿈을 꾸고 있었다.¹²⁾

그리고 이러한 야심을 달성하기 위해 그 계획은 더욱 구체화 되어 1591년에는 신분규정을 새로이 하여 농민들이 도시에 진출하여 상업이나 임대업 등에 종사하는 것을 금하고 시인(侍人)·중간(仲間)·봉공인(奉公人)이 새로이 백성이나 정인(町人)이 되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에 도요토미는 전국에 호구조사를 단행하여 집의 수와 사람의 수를 쓴 가수인수대장(家數人數臺帳)까지도 제출하게 하였다. 이것은 임진왜란을 앞두고 인부(인부)의 징발 등의 동원 계획에 필요한 자료를 정비하기 위해서였다.¹³⁾ 그리고 나서는 조선 침략의 야심을 더욱 표면화시켜 1591년 정월에는 전국에 군량·병선·군역의 수를 할당하고, 나고야(名護屋)에 성을 쌓아 조선의 침략 거점기지로 삼았다.

(3) 명의 정세

명나라는 건국이후 16세기에 접어들 때까지 한(漢)족에 의한 중국 대륙의 통치를 위해 중국 본토의 지배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다. 국가권력이 농

11) 中村榮孝, 위의 책, 242쪽.

12) 도요토미는 1591년 포르투갈령으로 인도의 고아 총독에게 入貢을 요구하고 루손島(필리핀)와 1593년에는 타이완에도 사람을 보내어 入貢을 요구하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무력으로 정복하겠다고 협박하였다.

13) 이현중, 앞의 책, 276쪽 참조.

촌사회를 직접 장악한 이갑제(里甲制)¹⁴⁾를 저변으로 하여 중앙과 지방의 여러 관청을 황제에 직속하게 하였다. 그러나 16세기에 들어서는 향신(鄉紳)들은 봉건적 토지소유의 변화 속에서 재지(在地)의 준관료적 세력을 갖고, 지방관에 대해서는 물론 반환관운동과 해금정책(海禁政策)에 대한 저항 등 왕조권력에 대한 발언권도 강화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향신층들 가운데 절강(浙江), 복건(福建) 등지에 거주하던 자들은 중소 상인을 동원하여 밀무역을 감행하고 있었다. 당시에는 명의 국력이 약화되면서 조공무역이 점차 쇠약해지고 정부의 감시도 점차 이완됨에 따라 사무역도 번창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¹⁵⁾ 이러한 가운데서도 명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의 확립을 피하여 화이(華夷)의 세계관을 형성하려 하였다.

명나라는 16세기 이래 정권을 장악한 자는 황제의 측근인 내각대학사의 수석이나 내정에서 봉사하는 환관 등 고급 관리였다. 특히 환관의 실권 장악은 후반기 중앙정치의 암적인 존재가 되었다. 특히 16세기에 재위한 정덕제(正德帝, 1505-21)는 8명의 환관을 총애하고 라마교를 광신하여 정치가 어려워지고 전국이 반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만큼 크게 동요하였다. 이러한 환관들의 횡포는 융경제(隆慶帝, 1567-72)와 그 아들 만력제(萬曆帝, 1572-1620)의 초기 10년간 수석 대학사인 장거정(張居正)이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면서 해이해진 기강을 바로잡고 세정(稅政)을 일신하는 한편 전국적인 토지측량에 의한 은전(隱田)의 적발 등으로 정치의 정상화를 실

14) 이갑제란 촌락내의 戶를 110호로 나누어 里라 하고, 이를 10甲으로 분류하고 이에는 里長, 10갑에는 甲首 1인을 두었는데 갑수는 대개 대토지를 소유한 지주가 담당하였다. 이는 농촌에 거주하는 부호 지주들의 기존 세력과 권위 및 영향력을 이용하여 일반농민들을 지배하기 위해 조직한 것이다. 명은 이 제도를 통하여 조세와 부역 등을 공평히 부과 징수하고 농업을 장려하였으며 동시에 농촌의 사회질서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역할을 맡은 것은 향신(鄉紳)들이었는데 이들은 지방관료의 보조자 또는 협력자로서 현지 관료들의 자문역할을 맡고 있었다. 향신들의 농민에 대한 독자적 지배는 허용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향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사회·경제적 지위와 권리 그리고 영향력을 이용하여 농민에 대한 황제 지배권을 관찰시켰던 것이다(이춘식, 『중국사서설』(교보문고, 1992) 378쪽.

15) 이춘식, 앞의 책, 375쪽.

현하였다. 그러나 그가 죽자 정치가 또다시 환관에 의해 문란해 졌으며 또한 서북 변경 영하(寧夏)에서 일어난 몽고의 항장(降將)보바이의 반란과 귀주 지방의 토관 양응룡(楊應龍)의 난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었다.

16세기에 있어서 동아시아의 정세는 조선의 경우에는 건국 후 200여년을 내려오면서 정치·경제·사상의 변화가 헤어나 문란을 넘어서 새로운 틀을 요구하고 있었지만 위정자들이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사회체제 전반이 이완되고 있었다. 일본의 경우는 16세기에 접어들어 전국시대가 통일되고, 전국시대에 양성된 제후들의 강력한 무력을 해외로 방출 시킴으로서 국내적인 안정을 더욱 공고히 하고 신흥 상업세력의 억제를 위하여 대륙침략을 꿈꾸게 되었는데 이러한 침략계획은 새로운 조총과 이에 따른 전법, 그리고 조선의 국내 사정과 맞물려 임진왜란으로 표면화 되었다.

2. 임난 전의 국방체제와 왜란의 발발

(1) 임난 전의 국방체제

조선초기의 지방 군사조직은 진관체제(鎭管體制)였다. 이 제도는 군익도(軍翼道)의 체제를 바꾼 것인데 주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중·좌·우익(右翼)의 편성을 갖던 종래의 체제가, 주요한 지역을 거진(巨鎭)으로 해서 나머지 주변 지역의 여러 진들이 소속되도록 한 것이었다.¹⁶⁾ 거진을 중심으로 여러 진이 이에 속하도록 한 것은 여러 진 각자에게 독자성을 부여하고, 일원적 군사체제를 더욱 분명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설명한다면 각 도마다 1~2개의 병영(兵營)을 두어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兵使, 종2

16) 『세조실록』 권9, 3년 10월 경술.

품)가 정해진 지역의 육군지휘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의 소재지가 주진(主鎭)이었다. 또 그 아래는 절제사(節制使)·첨절제사(僉節制使)가 거진을 단위로 하는 진관의 군사권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그 밑의 여러 진들은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절제도위(節制都尉)·만호(萬戶) 등이 그 진을 중심으로 적을 방어하는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었다. 이는 전국이 지역 단위의 방어체제를 형성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수군(水軍)의 경우도 육군의 진관체제에 따라 각 도의 수사 밑에 첨절제사·동첨절제사 등이 있고, 특수 포구에는 수군만호를 배치하였다. 수군은 해양방위를 하는 특성으로 인해 내륙의 육군과는 달리 도(道) 단위로 구분하고, 한 도에 수사(水使)가 임명되어 그가 부여된 해안을 방어하는 지휘관이 되었던 것이다. 진관체제 내에서의 해양방위의 특징은 수사가 관할하여 자전자수(自戰自守)하는 이른바 지휘권과 작전권이 독립된 지역방위 체제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역방위체제의 진관체제는 전면전(全面戰)을 예상한 방위체제가 아니라 국지전(局地戰)을 예상한 방위체제였다는 점이 특이하다 하겠다. 이러한 방위체제는 당시로서는 전면전을 예상하지 못하고 왜구의 침입에 대한 방어책 정도로 방어체제를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¹⁷⁾ 진관체제에 의한 방위체제는 방어책임을 분담하여 해당 진영의 소속 진영들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는 유리한 점도 있었으나 인접과의 합동 작전이 잘 되지 않는 결함이 있었다. 거기다가 지배계층의 해상 방어에 대한 관심이 점차 저하되고 수군에 대한 냉대는 수군의 규율과 질서를 해이하게 만들어 진관체제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을 기록에서 살펴보면 우선 중종 5년 10월 어전회의에서 채택된 내용을 살펴 볼 수가 있다. 그 내용은 첫째 육지에서도 장소만 잘 선택하여 봉화와 경계만 신중히 한다면 왜선의 이동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어서 상륙한 적을 쉽게 섬멸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 왜선의 이동을 자세히 알 수 있으므로 육상에 있는 아군은 적절한 전비태세를 수립할 수 있다는 것, 셋째 왜구가

17) 장학근, 『한국해양활동사』(해군사관학교, 1994), 172쪽 참조.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서는 선박을 이용해야 하는데 선박은 일기가 좋은 순풍일 때만 가능하므로 순풍일 때만 경계를 강화하면 된다. 넷째 침입 지역은 한정되어 있으며, 그곳만 방어하면 아군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¹⁸⁾ 이러한 방왜육전론(防倭陸戰論)은 이듬해에 병조(兵曹)가 건의한 내용에도 잘 나타나 있다.¹⁹⁾ 이와 같이 방왜육전론이 우세하게 대두되어 채택된 것은 사실상 수군의 무용론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해권은 점차 왜적에게 넘어가 해가 갈수록 크고 작은 왜변에 속수무책으로 해양 방위의 취약성이 노출되어 있었다. 이러한 결과 1510년(중종 5)의 삼포왜란과 1555년(명종 10)의 을묘왜변 당시에는 진관체제의 무력함이 그대로 드러났던 것이다.

(2) 왜란의 발발과 조선의 대응

1) 왜란의 발발

임진왜란은 주지하다시피 예견된 전란이었다. 도요토미는 조선과의 교섭이 결렬되자 바로 원정군을 편성하여 조선 침략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었지만, 조선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정치적 변화를 「교화권(教化圈) 밖」이라

18) 『중종실록』 중종 5년 10월.

19) 『중종실록』 중종 6년 12월조에 보면 ‘배를 모는 것은 본래 조선의 장기(長技)가 아니므로 수전을 하는 것은 조선에 불리합니다. 조선이 승리할 수 있는 전법은 기전(騎戰)이므로 기전으로 전법을 전환해야 합니다. 조선이 왜인을 후하게 대접하고 선린으로 대하고 있으니 왜구를 잡지 못한다고 해서 조선의 위엄이 손상되지 않으며, 오히려 장기가 아닌 수전을 하다가 패하게 되면 지금껏 유지해온 위엄이 크게 손상을 입게 됩니다. 왜구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계획은 아군이 육지에서 편안히 기다리면서 왜가 침략해 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구가 침략할 때마다 무리하게 해상에 나가 수전을 하게 되면 도리어 아군이 피로하게 되어 수전에 장기를 갖고 있는 왜구에게 크게 패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해전을 피하고 왜구가 상륙하기를 기다렸다가 해상에서 지친 왜구를 조선군이 기전(騎戰)으로 제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하여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고 있었다.²⁰⁾ 뿐만 아니라 빈번한 왜침 정보에 대해서도 ‘왜선의 승선 인원이 백 명 정도이므로 침략 규모래야 1만명을 넘지 않을 것이며, 침략지역은 전라도 연해일 것’으로 추측하는 정도였다.²¹⁾ 이때가 임진왜란 일어나기 불과 3년 전의 일로서 당시까지 조선의 방위전략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방왜육전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전략은 지상군 우위의 전략으로서 수군 무용론을 의미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왜군이 부산에 상륙하기 불과 13일 전에 선조가 각 처의 수사들에게 “해도(海島)의 주사(舟師)를 없애고 수군 장수들은 모두 육지에 올라와 수비에 임할 것”을 명령함으로써 전쟁 발발 전에 이미 해양방위를 포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²²⁾ 이때는 임란 바로 전해이다.

도요토미는 1591년에 일본 전국을 평정하고 침략전쟁을 위해 이해 정월에 전국에 걸쳐 군량·병선·군역의 수를 할당하였으며, 조선과의 교섭이 결렬되자 바로 조선을 침공할 계획을 실천에 옮겨서 원정군을 편성하여 조선을 침공하도록 하고 자신은 나고야(名護屋)에서 군사를 지휘할 계획을 세웠다. 다음 해인 선조 25년 정월에 일단 수륙침공군의 군대편성을 정하고 다시 3월에 재편성하였다. 그 내용은 육군은 침공군인 1번대(番隊)에서 9번대까지 총 15만 8,700명이었고, 나고야에 10만, 교토에 3만이 남아 수비토록 하였다.

또한 구니베(宮部長熙) 등이 이끄는 1만 2,000명이 전후하여 바다를 건너 후방경비에 임했다. 이외에도 하야가와(早川長政) 등이 부산에 침입하여 선척(船隻)을 관리하는 등 정규군 외에 막대한 병력이 출동하여 전체 병력 수는 20여 만명이 되었다.²³⁾

조선을 침입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춘 일본군은 1592년 4월 13일에

20) 『선조실록』 선조 20년 9월 정해, 21년 12월 기묘조 참조.

21) 『선조실록』 선조 22년 8월 병자.

22) 『선조수정실록』 선조 24년 7월 갑자.

23) 參謀本部 篇, 『日本戰史』- 朝鮮役 -, 村田書店(1978) 25~36쪽 참조. 여기에 보면 위의 각종 통계외에 당시 일본군 전체의 수를 56만 3천명 정도라고 하였다.

드디어 침입을 감행하였는데 침입 사실이 최초로 감지된 것은 이날 오후 5시경이었다. 이때 경상도 가덕도응봉봉수대(加德島鷹峰烽燧臺)는 보고하기를 ‘왜선의 수를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대략 90여 척이 가덕도 남쪽에서 부산포를 향하여 항해 중인데 그 뒤를 따라 계속 오고 있습니다’²⁴⁾라고 하였다. 이 보고 내용은 침략군을 실은 700여 척의 병선이 4월 13일 오전 9시 경에 대마도의 오우라항(大浦港)을 출항하여 때마침 불어오는 순풍을 타고 그날 오후 5시경에 부산포에 이르고 있는 상황 보고였다.²⁵⁾ 이튿날인 4월 14일 고니시가 이끄는 1번대가 부산포에 상륙하여 침입하였다.

한편 침략군의 후속부대는 계속 상륙하여 4월 18일에는 가토의 2번대 2만 2천여 병력이 부산에, 3번대 구로다의 1만 1천여 병력은 다대포를 거쳐 김해에 상륙하여 침공을 개시하였다. 그리고 4월과 5월에 계속하여 후속부대가 상륙하여 수군의 병력 약 9천과 합하여 일본침략군의 병력은 총 20만에 이르렀다.

그 후 왜군은 세 길로 나누어 서울을 향해 북상하였다. 왜군이 대거 침입했다는 급보(急報)가 서울에 전해진 것은 4월 17일 새벽 경상좌수사(慶尙左水使) 박홍(朴泓)으로부터 부산진성이 함락되었다는 장계에 이어, 그것이 확실하다는 보고를 받으면서부터다. 이 급보가 전해지자 조정은 물론 백성들까지도 공포분위기에 빠지고 말았다. 그리고 계속하여 경상도의 여러 고을이 함락되었다는 급보가 계속 올라오게 되자 조정에서는 급히 신립(申瑊)을 도순변사(都巡邊使), 이일(李鎰)을 순변사(巡邊使), 김여물(金汝物)을 종사관(從事官)에 임명하여 대비하도록 하는 한편, 김성일을 경상우도초유사(慶尙右道招諭使), 김륵(金玊)을 좌도안집사(左道安集使)로 삼아 민심의 수습과 항전을 독려하도록 하였다.²⁶⁾

24) 이순신, 『壬辰狀草』, 因倭警待變狀一.

25) 『西征日記』(왜승 天荊의 중군일기)에 보면 「…12일(조선력 13일) 맑음, 병선 700척이 大浦를 출발하여 오후 5시에 부산포에 도착했다」라고 하였다.

26) 『선조실록』 선조 25년 4월 17일.

조정과 백성들은 신립을 주축으로 한 장수들이 부상중인 왜군을 조령 등지의 요해처에서 능히 저지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었다. 그러나 4월 25일 순변사 이일이 상주에서, 4월 28일 신립이 탄금대에서 배수진을 치고 기다렸으나 거듭 패전하였다는 소식이 조야에 전해지자 이로 인한 충격은 매우 컸다.

2) 선조의 서천(西遷)

4월 25일 구로다가 이끄는 제3번대와 모리가 이끄는 제4번대도 성주에 이르렀고 추풍령을 넘어 청주성을 함락시키고 경기도로 빠져나와 서울로 향하였다. 한편 고니시(小西行長)가 이끄는 왜군 제1번대는 4월 26일 새재를 넘어 계속 북상하였다.

왜군이 계속해서 북상한다는 급보가 계속 조정에 날아들면서 서천을 주장하는 관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서울을 사수하겠다는 중신들의 목소리는 반대의 소리를 낼 수 없었다. 이에 선조는 28일 대신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제2자인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고, 백관(百官)에 명하여 용복(戎服; 군복)을 입도록 하였다.²⁷⁾ 다음날인 29일 밤 충주로부터 패전의 급보가 이르자 종실과 대신들은 시비도 따질 겨를 없이 천도를 결정하였다. 4월 30일 왕은 서천길에 올랐다.²⁸⁾ 왕이 새벽에 도성을 빠져나오자 난민(亂民)이 일어났다. 이들은 노비문서가 보관되어있는 장례원(掌隸院)과 형조를 불태웠고, 경복궁·창덕궁·창경궁 등 궁궐과 관아에 들어가 약탈하였다. 왕의 행렬이 혜음령(惠陰嶺; 파주 벽제)을 넘을 때는 호종하는 자가 유성룡·이산해·이항복 등 1백 여인에 불과할 정도였다. 왕이 개성에 이르렀을 때는 그곳의 사민들이 모여들어 돌을 던지는 자까지 있었다.

왜군의 제1대와 가토 기요사마(加藤清正)의 제2대가 서울에 쳐들어 온

27) 『선조실록』 26권, 선조 25년 4월 28일.

28) 『선조실록』 26권, 선조 25년 4월 30일.

것은 5월 2일과 3일이었다. 이때 한강을 수비하고 있던 도원수 김명원은 적의 조총탄이 지휘본부인 제천정(濟川亭)에 떨어지자 한강 수비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임진강으로 퇴각하였다. 따라서 유도대장 이양원도 도성의 방어가 불가능함을 알고 서울에서 철수했다.

한편 선조는 왜군이 도성을 점령하였다는 보고를 듣고 5월 7일 개성을 떠나 평양에 이르렀다.²⁹⁾ 그 뒤 김명원의 임진강 방어마저 실패하여 개성이 함락되고 개성을 함락시킨 왜군은 6월 1일에는 개성을 출발하여 간선도로를 따라 북상을 계속하였다. 선조의 서울에서의 서천 계획은 일차적으로 평양까지였다. 그러나 왜군이 계속하여 북상해 오자 의견들이 분분하였다. 함흥으로 가자는 의견도 있었고 강계로 가자는 의견도 있었으며 평양을 사수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런 와중에 마침내 도원수 김명원과 순찰사 이원익을 거느리고 평양을 지키도록 했다. 이러한 조정의 의지는 평양부민들의 평양사수 결의를 갖게 하였다. 이러한 동안 왜군은 급진격하여 대동강 연안에 다다르게 되니 다시 북행을 결의하였다. 평양성의 사수포기는 평양부민들의 분노를 자아내어 금방이라도 난이 일어날 지경이었다. 이에 윤두수·김명원·이원익에게 평양성을 방어하게 하고³⁰⁾ 왕은 6월 11일 평양을 떠나 안변에 이르러 함경도로 가려하였으나 이항복·이덕성의 의견에 따라 의주로 향하였다.

왕이 정주에 머물고 있을 때 평양 함락의 패보를 들었다. 광해군은 박천에서 묘사(廟社)의 신주를 받들고 영변으로 향하였다.³¹⁾ 왕은 6월 23일 의주 용만관(龍灣館)에 이르렀고 의주목사의 거소를 빌어 행궁으로 정하였다. 평양성을 수비하던 윤두수·김명원은 6월 13일 고니시군이 대동강에 이르자 다음날 새벽 정병을 뽑아 기습을 시도했으나 패하였다. 그리하여 평양성 방어를 포기하고 후퇴하니 3도(都)로 칭하던 서울·개성·평양이 왜적

29) 『선조실록』 26권, 선조 25년 5월 7일 병인.

30) 『선조실록』 권27, 선조 25년 6월 11일 기해.

31) 위와 같음.

이 부산에 상륙한지 60일이 채 못되어 모두 함락되고 전국토가 왜적에게 유린되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3) 조선의 대응

일본군의 침입은 1차적으로 부산포에서 저지되어야만 했다. 그러나 경상 좌수영군(慶尙左水營軍)은 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궤멸되고 말았다. 다음 날인 4월 14일 침략군의 선발대인 1번대의 주장 고니시가 이끄는 병력 1만 8,000명이 부산성을 공격하니 부산의 군민(軍民)들은 첨사(僉使) 정발(鄭撥)의 지휘아래 장렬하게 싸웠으나 중과부적으로 패하여 성은 끝내 함락당하고 말았다.³²⁾ 부산을 유린한 적들은 다음날 동래부(東萊府)를 침공하였다. 동래성 아래 도착한 적들은 「싸우려면 싸우고 싸우지 않으려면 길을 빌려 달라」는 오만한 요구를 해왔고, 이에 대해 동래부사 송상현(宋象賢)은 「죽기는 쉬워도 길을 빌리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대답하면서 이곳 군민들과 함께 치열하게 싸웠으나 송상현도 전사하고 성안에 있던 군민들도 몰사하였다.³³⁾ 이후 고니시의 부대는 조선 관군의 저항을 거의 받지 않고 4월 17일 양산, 18일 밀양을 거쳐 4월 21일 대구를 거쳐 선산을 통과하여 상주에 이르렀다. 당시 상주에서는 순변사(巡邊使) 이일(李鎰)이 농민 800여 명을 모아 북천변(北川邊)에서 훈련을 시켜 왜군에 대항하려 했으나 4월 25일 적군의 기습공격을 받아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하여 단신으로 탈출하였다.³⁴⁾

한편 고니시(小西行長)가 이끄는 왜군 제1번대는 4월 26일 새재를 넘어 충주에 이르렀는데 이때 조정에서는 신립(申砮)을 삼도순변사로 삼아 충주 지역에 제2방어선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신립은 도성에서 모집한 군사 8천

32) 『日本戰史』, 153쪽, 『선조실록』 선조 25년 4월 13일.

33) 위의 책, 154~155쪽 참조, 『선조실록』 선조 25년 4월 13일.

34) 이궁익, 『練藜室記述』 권15, 「宣祖朝故事本末 壬辰倭亂 大鷲西狩」, 『선조실록』 선조 25년 4월 17일.

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내려가 탄금대에 배수진을 쳤다. 4월 28일 고니시가 이끄는 왜적들이 조총을 쏘아대며 탄금대에 진치고 있는 신립군을 삼면에서 포위망을 좁히며 공격해 왔다. 이에 신립과 종사관 김여물(金汝物)은 말을 달려 수십 명의 적을 무찌르면서 네 차례에 걸쳐 용맹스럽게 싸워 방어하였지만 전세가 기울어 패하고 말았다. 이것이 평야에서 싸운 최초의 전투이며 신립은 이 전투에서 패한 후 달천강에 투신 자결하였다.

이후에도 육전에 있어서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기는 어려웠지만 곳곳에서 관군과 모집한 근왕병 그리고 의병의 활동은 왜군을 패퇴시킬 수 있었다. 예컨대 5월 12일부터 왜적들이 임진강에 접근해오자 이빈과 유극량의 부대가 매복전을 벌려 많은 적을 사살하고, 이빈의 부대는 계속해서 양주 장수원에서 신각의 부대는 양주의 해유령에서 왜적들을 소멸하였다. 이렇게 하여 8·9일 동안 왜적들이 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였는바 이는 관군이 역량을 수습하고 부대를 재편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벌게 하였던 것이다. 한편 하삼도(下三道)의 근왕병 6만여 명의 활동도 비록 전투에서는 크게 승리하지 못하였지만³⁵⁾ 국민들의 애국충절을 불러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이 시기의 의병활동은 일본군 점령지 전후방에서 유격전을 벌여 왜군의 보급과 전략에 많은 차질을 주었다. 영남지역의 광재우나 충청도의 조헌, 호남의 고경명과 그 아들 고종후, 그리고 김천일·김덕령 등은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휴정·유정·영규대사 등의 승군들이 활약한 것도 바로 이 시기였다. 한편 이 시기에 육전에서의 패전과는 달리 수군은 이순신이 전라좌수사로 발탁된 이래 1차 옥포와 적진포에서 2차는 사천, 당포, 당항포, 울포에서 3차는 한산도, 안골포에서 4차는 부산포에서 4차례에 걸친 출동으로 큰 승리를 거두어 제해권을 장악하였다.

이처럼 왜란이 발발하였을 당시 조정은 무능한 것처럼 보였으나 민·관·군 모든 백성이 혼연일체가 되어 적을 이 땅에서 물리치려는 의지는 다

35) 『선조실록』 권26, 25년 5월 경신. 『선조수정실록』 권26, 25년 6월. 『연려실기술』 권15, 「三道勤王龍仁敗績」.

를 바가 없었다. 특히 외적이 침입했을 때 1차적으로 책임지고 막아야 할 정부보다, 이름 없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일어 나섰다는 것은 누가 더 나라를 지키는 원동력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조선의 대명(對明) 청병(請兵)외교

일본군의 침입에 대한 사실을 조선 조정이 명나라에 통보한 것은 1592년 5월 12일로 전쟁이 발발한지 28일 뒤였다. 당시 전황은 충주의 제3방어선도 붕괴되고 국왕이 파천을 단행하던 때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군사지원 요청을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당시 전황이 너무 급박하여 지원군을 요청할 경황이 없었고, 둘째는 조선이 원군을 요청하면 명나라는 요동병이나 광동병을 파견할 것인데 그들은 모두 호달(胡韃)족으로 난폭하여 그들이 백성을 유린한다면 적에게 함락되지 않은 패강(청천강) 서쪽의 고을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염려 때문이었다.³⁶⁾ 원군 요청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조정에서는 유근(柳根)을 파견하되 겉으로는 영위(迎慰)를 표방하고 내용은 우리나라의 피폐한 사정을 직접 호소하여 중국 구원병이 오래도록 머물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하였다.³⁷⁾

그 뒤 조선은 사태가 급박해 지면서 임진강의 수비가 위태로워지자 명나라에 원군(援軍)을 요청하자는 논의가 되었다. 이때 이항복은 이미 8도가 궤멸 상태에 들어갔으니 명에게 출병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³⁸⁾ 좌의정 윤두수(尹斗壽)는 삼남·북도(北道)병을 집합시키면 아직 비관적이지 아니며, 만일 명군이 국내에 들어오면 더 큰 피해를 받을 것이라고 반대

36) 『선조실록』 선조 25년 5월 무자.

37) 『선조실록』 권26, 선조 25년 5월 29일 무자.

38) 『선조수정실록』 권26, 선조 25년 5월 경신.

하였다.³⁹⁾ 사태는 더욱 급박하여지고 결국 지원군을 요청하기로 하였는데, 당시의 상황을 기록에서 살펴보면 유성룡이 중국의 차인(差人)과 왜적 상황을 살피고 출병을 앞당기도록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풍원 부원군 유성룡이 치계하였다.

“묘시(卯時)에 왜적 수백 기(騎)가 모두 잡색(雜色) 기치(旗幟)를 가지고 강가 백사장에 주둔하여 오가며 치단기에, 바로 역관(譯官)에게 명조(明朝)의 차인(差人)을 불러오게 하였더니, 두 사람이 한참 동안 바라보고서는 말하기를 ‘만약 이와 같을 뿐이라면 천병(天兵)이 한번 오면 왜적들을 섬멸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신이 역관을 통해 다시 그들에게 말하기를 ‘왜적들은 온갖 간사한 꾀를 다 내는데 강의 상류와 하류에는 건널 수 있는 얇은 여울이 없지 않으므로 병사들을 나누어 수비하다 보니 힘이 분산되는 것이 적경이다. 명병이 오는 것이야말로 한 시각이 급하니, 대인(大人)은 급히 귀국하여 출병할 시기를 앞당기라’ 하였습니다.

생각하건대, 지금 왜적의 기세로는 이 강을 건너기가 참으로 어렵지만, 강물의 상류와 하류만은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오늘 황주(黃州)에서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온 사람의 말을 듣건대 ‘적병은 뒤따라오는 군사가 별로 없고 군량도 거의 다 떨어졌다고 하니, 이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만약 수일만 지탱하여 명나라 병사가 들어오게 되면 왜적들을 물리칠 가망이 없지 않습니다. 신은 이곳에 있으면서도 이미 병무(兵務)에 참여하지 않아 별로 하는 일이 없으니, 다시 사세(事勢)를 관망하다가 중도(中道)로 달려나가 명나라 장수에게 위급함을 알려서 제때에 달려와 구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⁴⁰⁾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이덕형(李德馨)을 청원사(請援使)로 임명하여 피난지인 평양에서 6월 11일에 출발시켰다.⁴¹⁾ 그리고 이틀 후인 6월 13일에 선조는 영변

39) 위와 같음.

40) 『선조실록』 권27, 선조 25년 6월 기해.

41) 『선조실록』 권27, 선조 25년 6월 기해, 『寄齋史草』 下, 임진일록 2, 6월 11일조.

에서 조신들과 논의한 결과 왕세자 광해군을 주체로 분조설치(分朝設置)를 결정하고 선조는 요동으로 건너가 명에 직접 청원하기로 하였다.⁴²⁾ 6월 14일에 선조는 다시 영변을 떠나 22일에 의주에 도착하여서 빨리 요동으로 들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신들의 의견이 왜적에게 짓밟히지 아니한 강토가 있는데 타국으로 국왕이 떠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건의에 따라 의주에서 관망하기로 하였다.⁴³⁾ 한편 명측에서는 조선국왕의 입요(入遼)를 인정한다고 하여도 의주(義州) 대안(對岸)인 관전보(寬奠堡)에 머물게 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선조는 의주에 머물기로 하였다.⁴⁴⁾ 당시 명의 병부상서(兵部尙書)석성(石星)은 선조의 입요 요청은 관전보로 정하여 들게 하고, 파병은 조의(朝議)에서 결정함이 마땅하다고 건의하였다.

실제로 당시 명에서는 관전보에 선조가 들어올 것에 대비하여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고 있었는데, 조선의 예조판서 윤근수(尹根壽)가 선조의 입요를 교섭하기 위하여 압록강을 건너 총병관(摠兵官)인 동양정(修養正)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마침 총병(摠兵)을 만났는데 총병이 하는 말이

…… 관전보에 오게 되면 역원(役員) 10명을 거느리고 나가서 도강(渡江)하는 날에 맞아들이고 …… 하루의 소채(蔬菜)는 은(銀)4전(錢)으로 하고 돼지와 양을 각 1마리씩 준비하는 등 음식을 풍족하게 할 것이며, 또 종관(從官)과 사용인(使用人)은 100명으로 하고 부인(婦人)은 20명으로 한정하여 따라서 강을 건너오게 하여 원호(援護)에 과오가 없도록 하라는 성지(聖旨)가 내려졌다고 하였다.⁴⁵⁾

라고 하였다.

42) 『선조실록』 권27, 선조 25년 6월 임인 계묘.

43) 이민호, 「임난과 조·중·일의 외교관계」, 『임난수군활동연구논총』(해군군사연구소, 1993) 22쪽.

44) 『선조실록』 권27, 선조 25년 6월 신축, 임인, 계묘, 경술, 신해, 임자, 갑인, 『寄齋史草』下, 임진일록 2, 6월 14, 5일조.

45) 『神宗實錄』(明) 권250, 萬曆 20년 7월, 무오, 계미, 朴東亮, 『寄齋史草』下, 壬辰日錄 3 참조.

이렇게 명에서 선조가 명나라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 거처를 의주대안(義州對岸)으로 제한하고자 한 것은 조선에 대한 의심과 전화(戰火)가 명에 까지 확산되는 것을 막아보자는 속셈이었다. 당시 조선 조정이 이덕형을 파견하여 명나라에 원군을 요청한 근거는 사대의리(事大義理)론 이었다. 왜노(倭奴)들이 무도하여 명나라를 침범하려 하므로 조선이 군신의 의리에 의하여 일본을 배척하다가 마침내 일본을 성내게 만들어 명나라에 앞서 조선이 먼저 흉악한 침략을 당한 것이다.⁴⁶⁾ 이 논리는 일본이 명나라를 침략하려 할 때 조선이 이를 만류하자,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다는 논리인데, 이는 조선이 명에 사대의리를 충실히 지켰기 때문에 일본의 침략을 당했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명 조정에서는 이러한 조선의 청병 요청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 이유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장차 조선이 일본과 합세하여 명을 침공하리라는 유연비어가 중국 남쪽에 퍼졌고, 임진왜란이 일어나 순식간에 서울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에 접한 명나라로서는 고구려 이래로 강한 국가로 인식되어온 조선이 왜군에 대해 이렇게 패할 수 있는냐는 것이었다.⁴⁷⁾ 명에서는 조선이 고의적으로 명의 침략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과 함께 선조의 입요(入遼)설까지 나오자 그가 정말 조선 국왕인가 하는 의아심을 갖는 자들도 있었다.⁴⁸⁾ 이러한 명나라의 의구심은 조선이 왜군 향도(嚮導)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심에서 비롯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일본이 일찍이 명을 침입하겠다는 의향을 여러

46) 『선조실록』 권27, 선조 25년 7월 2일 기미조에 “지난해 왜노(倭奴)가 상국(上國)을 침범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향도(嚮導)로 삼으려 하였으나 우리가 길을 빌자는 모의를 거절하였소이다. 그 까닭으로 독(毒)을 몇대로 부려 유린하니 고금에 어찌 이런 일이 있겠소이까”라고 하였다.

47) 최영희, 『일본의 침구』, 『한국사』 12(국사편찬위원회, 1977) 312쪽.

48) 『神宗實錄』(明) 권250, 萬曆20년 7월무오, 계유조, 『선조실록』, 선조 25년 5월 무자조에 보면 명에서 은밀히 최세신(崔世臣)과 임세록(林世祿)을 파견하여 “조선이 일본과 짜고 침략 당했다고 거짓말을 한다”, “조선왕과 군사들은 북도(北道)에 들어가 피신하고 다른 사람이 가짜 왕이 되어 일본군의 향도역을 하고 있다”는 소문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고 했다.

차례 조선에 알려왔는데도⁴⁹⁾ 조선에서는 일본이 감히 조선이 상국으로 생각하고 있는 명에 대하여 무례한 언행을 한다고 ‘일본이 중국을 침략한다는 말을 고치지 않으면 어떠한 일본국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대의명분만을 고집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일본이 명을 침략하려한다’는 왜정(倭情)에 대한 통보가 명나라에 늦게 전달되었다. 그러나 조선의 왜정통보가 명나라에 도착하기 전에 명나라에서는 일본의 침략의도를 감지하고 있었다.⁵⁰⁾ 그렇기 때문에 조선으로부터의 통보가 늦어지자 의심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명 조정에서는 이러한 의심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사신을 평양에 파견하여 조선 국왕과 중신들을 만나 조선이 일본의 향도인가 아닌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 하였다. 이에 조선 조정은 일본국사가 조선 조정에 전달한 국서 중에 “일본은 조선과 원한이 없다. 단지 중국을 침범하려는 것뿐이다”라는 기록과 “조선은 중국의 울타리 나라다.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려 한다는 내용이 있어 그 국서를 접수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보여줌으로써 조선은 명의 충실한 사대국(事大國)이며 일본을 안내하는 향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⁵¹⁾

명 신종은 석성(石星)의 건의대로 조의(朝議)를 열어 파병의 문제를 논의 하였는데, 이때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파병을 하자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있었다. 먼저 파병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외국끼리 서로 싸우는데 중국이 반드시 구원할 필요가 없으니 마땅히 압록강을

49) 첫 번째는 1587년(선조 20)에 일본국사 다치바나(橋康廣)일행이 조선에 와서 통신사 파견을 요청하면서 그런 의도를 내비친 일이 있었으며, 이듬해에도 겐소(玄蘇) 등이 사신으로 와서 같은 의사를 전달했으며, 1590년 조선통신사 황윤길과 김성일 일행이 일본에 가서 체류하는 동안 도요토미의 서신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도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다.

50) 당시 명조정은 ① 일본 薩摩州에 잡혀있던 許儀後가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려 한다는 사실을 비밀리에 중국 변방 장수에게 알렸으며, ② 琉球國이 명에 조공을 하는 과정에서 도요토미가 명을 치러는데 안내를 부탁한다는 요청을 했다는 것을 말하였으며, ③ 일본은 내왕하던 중국 상인 陳甲이 일본이 조선을 선봉으로 명나라를 치러 한다는 소문을 내고 있었다.

51) 『선조실록』 권27, 선조 25년 9월 기미.

수비하면서 날랜 군사를 출동시켜 강을 건너가 우리의 위력을 보이자” 하고 혹은, “압록강을 굳게 수비하면서 그 형세의 변천을 관망하자”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병부상서(兵部尙書) 석성(石星)은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력히 역설하면서 “먼저 병기와 화약 등 적을 방어하는 기구를 보내 주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과도관(科道官: 명나라 各部의 실무를 맡은 기관)이 “군기와 화약을 외국에 주는 일을 금하는 것은 고황제(高皇帝: 명나라의 태조)의 법이니 어길 수 없다”고 반론하였다. 그러나 석성은 이에 대하여 “소위 외국이라고 한 것은 멀고 먼 곳에 있어서 그 나라의 성공과 실패가 중국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조선은 사정이 국내와 같은 것이다. 만일 왜적으로 하여금 버젓이 조선에 살게 하여 요동을 침범하게 하고 다시 산해관에 미치게 하면 곧 북경이 진동하게 될 것이니, 이것은 바로 배와 가슴에 있는 걱정이어늘 어찌 다른 범상한 사례(事例)와 같이 논의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하며 설득하며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명나라 조정에서는 파병 쪽으로 결정이 내려졌다.⁵²⁾ 또 결정하기를 지원금 조로는 2만 냥을 보내고⁵³⁾ 남병(南兵) 3천을 파병하여 의주 강상(江上)을 지키게 하고, 다른 보병 3천명을 보내어 압록강 가의 선조의 행궁(行宮)을 지키도록 결정하였다.⁵⁴⁾ 그러나 실제로 임난 때 조선에 파견된 명군은 이 결정에 앞서 있었다. 그것은 청원사 이덕형이 1592년 6월 11일에 평양을 떠나 요동으로 들어가 요동순무(遼東巡撫) 학결(赫杰)에게 간절한 원병 파송의 서장(書狀)을 올리고 막하(幕下)에서 떠나지 않으므로, 이에 감동하여 참장(參將) 대조변(戴朝弁)과 유격장군 사유(史儒)등으로 하여금 요동 병력을 인솔하도록 파병한 것이었다.⁵⁵⁾ 이때 요동 병력은 6월 15일에 강을

52) 『연려실기술』 권16, 선조조 고사본말 求救明朝收復京城 당시에 석성이 파병을 강력히 주장한데는 주청사(奏請使)로 명나라에 파견되었던 정곤수(鄭崑壽)가 석성에게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파견을 요청하며 석성이 이에 감동하여 파병을 주장하였다고 하였다.

53) 『선조실록』 권27, 선조 25년 6월 임자.

54) 『연려실기술』 권16, 선조조 고사본말 求救明朝收復京城.

55) 『선조실록』 권27, 선조 25년 6월 16일 갑진조에 보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건넌는데 독전 참장 대조변과 선봉 유격(先鋒遊擊) 사유가 거느린 군사는 1천 29명이며, 말이 1천 93필, 수하(手下)의 집기(執旗)·천총(千總)·파총(把總) 등이 도합 10명이었다.⁵⁶⁾ 그러나 1차로 파병한 이 부대가 평양에 도착하기 전에 평양이 함락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임반역(林畔驛)에서 의주로 되돌아갔다.⁵⁷⁾

명의 2차 파병은 같은 해 7월 17일 요동부총병(遼東副總兵) 조승훈(祖承訓)이 이끄는 5천 병력이었다. 조승훈이 5천의 군사를 거느리고 올 때 조선에서는 유성룡을 보내어 중강(中江)에서 맞이하도록 하고 군량까지 준비하도록 하였으며, 대정강(大定江)과 청천강에 부교를 만들었다.⁵⁸⁾ 조승훈이 평양성에 있는 왜적을 치기위해 나가려할 때 유성룡과 김명원이 비가 오고 길이 미끄러우니 기다릴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하고 공격을 감행하다가 왜군의 복병에게 크게 패하게 되었다. 이때 사유(史儒)도 조총에 맞아 전사하였다. 사유가 죽는 것을 보고 승훈이 먼저 도망치니 진영이 무너져 군사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결국 조승훈의 평양수복전은 무모한 공격과 지리에 어둡고, 왜군의 신무기인 조총 등의 타격으로 크게 패하였다.⁵⁹⁾

나와 있다.

해평 부원군(海平府元君) 윤근수가 치계하였다.

“어제 심희수(沈喜壽)가 구원병을 요청할 일로 탕참(湯站)으로 달려 갔다가 오늘 사시(巳時)에 돌아왔습니다. 듣자니 대조변(戴朝弁)·사유(史儒) 두 장수가 군마(軍馬)를 거느리고 15일에 강을 건넌다고 하기에, 신은 강가에 가서 병마를 기다리려고 달려 돌아왔습니다. 요동의 차문에도 ‘사유(史儒)의 대는 7일에 출발시켰고 왕수관(王守官)의 군대는 10일에 출발시켰다.’ 하였으니, 이로써 본다면 왕수관도 계속하여 출발한 것 같습니다. 다만 병사의 수효가 요청한 것보다 부족하니 다시 강을 건너가 동·사(史) 두 장수에게 간곡히 요청하고자 하며, 부총병(副總兵)이 만약 가까운 보(堡)에 와서 둔하고 있으면 아울러 대면하여 간청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명사(明使)가 길을 떠나면 반드시 무장(武將)이 앞에서 인도하여야 되는데, 기일(期日)이 이미 촉박하기 때문에 신이 감히 편의에 따라 삭주 부사(朔州府使) 박희성(朴希聖)에게 통지하여 달려오도록 하였습니다.”

56) 『선조실록』 권27, 선조 25년 6월 17일 을사.

57) 諸葛元聲, 『兩朝平壤錄』 권4, 「日本」의 기사를 이민호, 앞의 논문, 23쪽에서 재인용.

58) 『연려실기술』 권16 선조조 고사분말 求救明朝收復京城.

그런데 조승훈은 돌아가서 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순무(巡撫)·안찰사(按察使)·진(鎭)의 세 곳 아문(衙門)에 보고하는 글에 “바야흐로 성을 공격하여 거의 다 이기게 된 때에 조선의 한 진영(陣營)이 왜병 편에 가담하여 싸움을 도와서 화살과 돌이 빗발치듯하였으므로 패전하였다”고 하였다⁶⁰⁾고 하였다. 이에 명나라에서는 그 뒤의 청병에 대하여 조선에 대하여 의심을 하면서 진부(眞否)를 탐문하고 자문(咨文)을 조선에 보내어 힐책하면서 이런 저런 구실을 내세워 청병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그러다가 계속된 조선의 청병과 왜적이 명나라로 향할 것을 염려하여 행인사행(行人司行) 설번(薛蕃)을 파견하여 10만명의 군대를 조선에 파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과 그 10만명의 군량을 조선에서 감당하고 그 대신 그 값으로 은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해왔다.⁶¹⁾ 그런데 당시 설번이 조선에 와서 하루를 묵고 명나라에 들어가 먼저 조선에 다녀온 상황을 서면으로 보고 하였는데 그 내용에 “신이 깊이 근심하는 것은 조선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경이며 뿐만 아니라 나아가 내지(內地)가 진동할 것을 두려워함입니다. … 무릇 요동진(鎭)은 북경의 팔과 같은 것이요, 조선은 요동진의 울타리와 같은 것입니다. … 2백 년 동안 복건성과 절강성은 항상 왜적의 화를 입어왔으나, 요양(遼陽)과 천진에 왜구가 없었던 것은 조선이 울타리처럼 막았기 때문이었습니다. … 만일 왜적들로 하여금 조선을 점거하게 한다면 요양은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잘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⁶²⁾ 이러한 사실들은 명의 원군 파병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선조는 10만 병력의 군량을 조선에서 담당하라는 명나라의 요구에 대하여 쌀이 많이 있지 않음을 들어 지원군 5만을 요구했다.⁶³⁾ 당시의 절박한 상황에서 10만 이상의 병력이 필요한데도 지원

59) 『연려실기술』, 『明史紀事本末』 권62, 『援朝鮮』; 『연려실기술』 권16, 선조조 고사본말 求救明朝收復京城.

60) 『연려실기술』 권16, 선조조 고사본말 求救明朝收復京城.

61) 『선조실록』 권27, 선조 25년 7월 병술.

62) 『연려실기술』 권16, 선조조 고사본말 求救明朝收復京城.

군의 수를 절반으로 줄인 것은 명의 입장에서는 수긍하기 힘든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조선은 지원군 반감 요청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사대의리론을 내세워 지원군을 5만의 지원군을 요청하였다.⁶⁴⁾ 그런 상황 아래 명나라 조정은 일본군이 명나라로 향할 것을 두려워하여 제3차 조선원군 증파 계획을 10월 6일과 11일에 조의(朝議)에서 논의하였다.⁶⁵⁾ 그리고 10월 16일에 이여송(李如松)을 동정군제독(東征軍提督)으로 임명하고, 경략(經略) 송응창(宋應昌)을 동정군 사령관으로 삼았으며, 특별히 이여송에게는 제독 계요보정산동등처방해어왜총병관(提督薊遼保定山東等處防海禦倭總兵官)이라는 직함을 내려 동정군(東征軍)의 전선사령관으로 삼았다.⁶⁶⁾ 명의 이여송이 이끄는 장병 4만 3,500명은 그 해 12월 25일 압록강을 건너 조선으로 들어 와서⁶⁷⁾ 조선군 8,000명과 함께 이듬해인 정월 8일에 평양성 탈환 전

63) 『선조실록』 권27, 선조 26년 7월 신유.

64) 임란이 발발했을 당시 조선에서는 군량이 가장 큰 문제였다. 임란이 일어날 당시의 조선의 소저미(所儲米)는 50여 만석이었다. 종종 년간의 소저미가 203만석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대폭 감소된 것이었다(『선조실록』 권140, 선조 34년 8월 무인). 또한 짧은 기간에 전 국토가 유린당하였기 때문에 적의 침입을 당한 지역의 官穀은 移送하지 못한 채 소실되었거나 적에게 약탈당하였다. 또 중앙과 지방의 연락이 두절되고 관곡을 관장할 사람을 임명하지 못하였던 관계로 관병이나 의병들이 무절제한 소모를 한데서 비축미가 결핍되었다. 그리하여 명나라에 청병 할 즈음에는 군량미가 큰 걱정거리 중의 하나가 되었다. 임란 중에 도체찰사와 영의정의 중책을 맡고 있던 유성룡이 적을 막는 제1조건이 군량이라 하였으며(懲毖錄, 권16, 軍門登錄), 전라좌의병장 임계영도 역시 같은 말을 하고 있다(조경남, 『亂中雜錄』 권1, 기사 5월). 실록에 보면 군량에 관한 기사가 여러 곳에 보이는데 몇 가지만 살펴보면 『선조실록』 25년 6월 15일(계묘), 7월 4일(신유) 등에 보이며, 특히 7월 6일(계해)조에는 중국 군사에게 지급할 군량 조달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으며, 7월 4일(신유)조에 보면 선조가 친히 “...나는 군사가 적은 것이 걱정스럽지 않고, 다만 군량이 걱정스러울 뿐이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명이 10만을 파병한다고 할 때 절반인 5만을 요구한 까닭을 알 수 있으며, 무리를 하게 되면 백성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을 염려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65) 이때 파병이 적극적으로 명의 조정에서 논의된 때에는 9월에 설변이 조선에 와서 보고 들은 것을 보고한 내용이 크게 작용하였으리라고 생각된다.

66) 『神宗實錄』(明), 권253, 萬曆20년 10월 임신, 정유.

67) 『선조실록』 권27, 선조 26년 1월 병인.

투를 전개하여 다음날 9일에 고니시 유키나카의 일본군을 패주(敗走)시켰다.⁶⁸⁾

4. 맺음말

조선이 건국된 후 대외정책은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사대교린(事大交隣) 정책이었다. 중국에 대해서는 사대의 외교를 일본, 여진, 유구 등에 대해서는 교린의 외교정책을 써왔다. 특히 명나라와 관계는 여러 방면에서 심혈을 기울였다. 명을 힘이 강하고 문화수준이 높은 대국으로 인정하여 형식상 조공을 하면서 우호증진에 힘썼다. 명 또한 오랜 역사적 경험에서 조선이 문화적 공지가 큰 나라임을 잘 알고 있어서 독립국임을 인정하였다. 그리하여 두 나라 사이에는 사대 조공(事大 朝貢)의 외교 관계가 맺어져, 사절의 교환을 통해 문물 교류가 활발했었다.

이처럼 조선이 명에 대하여 사대외교를 구축한 데는 조선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 하나는 평시에는 명의 선진 물질문명을 수입하여 국가를 부흥시키고, 둘째는 전시에는 명의 군사력을 이용하여 국가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⁶⁹⁾ 그러나 막상 임진왜란이 발발 했을 때 명에 대한 조선의 기대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의 조선과 명은 일본의 침략에 대하여 동상이몽(同床異夢)의 입장에 있었다. 조선의 입장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대와 절의로써 명의 입장에서 일본에 대했지만, 명은 조선의 안보보다는 자국의 안보에만 관심이 있었고 조선의 청명에 대해서도 그런 관점에서만 파병이 이루어졌다. 이런 상황은 조선에 대한 파병을 논

68) 『선조실록』 권34, 선조 26년 정월 갑오, 을축, 병인.

69) 장학근, 『왜군 향도론에 대한 명·일의 압력과 조선의 대응』, 『임난수군활동연구논총』, 46쪽 참조.

의 하는 자리에서 당시 친한파로 알려진 설번(薛藩)마저도 “신이 근심하는 것은 조선이 아니라 조선의 패배로 명의 내지(內地)가 진동할 것이 두렵다”고 말한데서도 잘 나타나 있다. 뿐만 아니라 왜군이 한성에서 퇴각하자 조선 조정은 후퇴하는 왜군을 섬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명나라 경력(經略) 송응창은 “일본군이 국경을 넘지 않았으므로 토벌 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그 뒤 강화회담의 명나라측 실무자로 파견된 왕통판(王通判)은 “명나라는 조선과 일본을 똑같이 사랑하니 조선과 일본이 화해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했다.⁷⁰⁾ 이러한 사실들은 조선의 청병에 응한 명의 입장은 조선을 지키겠다는 것보다는 명의 입장에서 명을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지원병에 나섰다는 복심(腹心)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06. 4. 7, 심사완료일 : 2006. 7. 25)

주제어 : 임진왜란, 명나라, 군사지원, 군사외교, 도요토미 히데요시

K C I

70) 『선조실록』 권27, 선조 26년 4월 정해.

<ABSTRACT>

The Outbreak of *Imjin* War and
Joseon's Diplomacy for Military Aid

Nah, Jong-woo

Entering the 16th Century *Joseon* Dynasty saw its ruling class-the *Sadaebu*-divide into lasting factions and contend with one another for political control. Through four major factional clashes leading to deaths and bloodshed, high politics came to be exclusivist and prejudiced. Economically, the laws governing land distribution and military service, which were riddled with logical inconsistencies from the beginning, were abolished and new measures put in place. In foreign relations problems with Japan arose freshly. After the clash in *Sampo* in 1510, the government lost control over Japanese piracy and diplomatic relations came to be severed.

Japan entered the so-called Age of Wars as the 16th Century dawned. Local lords called themselves *Senkoku Daimyo* and entered the national political scene. This also was the era that saw the introduction of the musket and Christianity along with a host of other changes. Though *Oda Nobunaga* first captured control, he was killed in 1582 and the power shifted to *Toyotomi Hideyoshi*. From 1591 on *Toyotomi* was earnestly committed to preparing for the invasion of *Joseon*.

Ming Dynasty in the 16th Century, on the other hand, was in great turmoil. The emperor's close aides and eunuchs came into power and disrupted politics, and the entire nation was shaken by an uprising.

While Japan prepared to invade *Joseon* according to *Toyotomi's* plans, *Joseon* deemed Japan's political changes outside its interests and was negligently indifferent. Because defensive priorities were given to ground

forces, naval defense was all but abandoned. Under these conditions a Japanese force of 200,000 men invaded on 13 April 1592. Failing to put up even one successful fight against the invaders, *Joseon* lost the capital of Seoul in just twenty days. The king sent princes to each province to enlist men, and himself headed north to *Gaeseong*. Later he was forced to move farther north to *Pyeongyang*, and later again to *Uiju*.

Joseon formally informed Ming of the Japanese invasion on May 12, twenty-eight days following the war's outbreak. It did not request Ming's military aid until June 11, forty-six days into the war. When the Japanese marched near *Pyeongyang*, *Seonjo*, the king of *Joseon*, sent *Lee Deokhyeong* to China to seek help. At the time Ming, however, would not consider intervention unless the invaders crossed *Daedong* River, prioritizing its safety over *Joseon's* fate. Then the *Daedong* line fell, and on July 10, 1592, Ming dispatched 3,500 men under *Cho Seunghoon's* command. On July 17, *Cho* faced the Japanese at the assault against *Pyeongyang* fortress and was forced to retreat. Expeditionary forces were planned several more times and discussions continued in Ming, and eventually out of concern that Japan might continue marching into Chinese mainland a decision was reached to deploy 43,500 men in December 1592, to join with 8,000 *Joseon* soldiers and recover *Pyeongyang*. Afterwards the Japanese forces were on the retreat, and *Joseon* leadership asked Ming to pursue and annihilate them. But Ming thought to make peace with Japan and replied that "Since Japan did not cross the border into China, we may not carry out a punitive expedition." It rejected *Joseon's* strategy to destroy the invaders in cooperation, and instead wished to end the war with peace talks. This spoke for Ming's attitude in providing military assistance, which was intended to preserve its own interests rather than to protect *Joseon*.

Key Words : *Imjin* War(*Imjinwaeran*), Ming Dynasty, Military Aid, Military Diplomacy, *Toyotomi* Hideyoshi